

## 부산지역 주부의 외식행동에 관한 조사연구

문정원 · 안재두\*

부산여자전문대학 식품영양과

\*부산여자전문대학 관광경영과

(1996년 6월 12일 접수)

## A Survey on housewives' dining-out behaviour in Pusan

Moon Jung-Won and Ahn Jae-Doo\*

*Department of Food and Nutrition, Pusan Women's Junior College, Pusan 614-734, Korea*

*\*Department of Tourism and Management, Pusan Women's Junior College, Pusan 614-734, Korea*

(Received June 12, 1996)

### Abstract

To study the dining-out behaviour of housewives, the frequency, food preference, expense for dining-out in social meeting, family gathering, daily meal were surveyed with a total of 454 housewives in Pusan. (1) In the frequency of dining-out, once or twice a month shows highest percentage, 59.7% and 45.8% for social meeting and family gathering respectively. The occasion of dining-out for the daily meal is less than 1 or 2 time per 6 month (62.6%). The frequency of dining-out is highly dependent on demographic variables such as age, academic background, family income, car ownership. (2) The preference for Korean dishes is found to be top in all occasions for dining-out. And then for the social meeting, chinese food, western style food, japanese cuisine and fast food are preferred in order, while western style food and chinese cuisine are rather preferred than japanese cuisine and fast food in occasion for family gathering. When they dine out just for daily meal, korean food is preferred first and preference for chinese food, western style food, fast food is followed in order. Japanese cuisine is preferred the last. (3) Housewives answered highly that the expense they spend for dining-out for social meeting (45.8%) or family fathering (46.8%) is 5,000 to 10,000 won per person. For these occasions, the expense is different with family income. Namely, if their income is higher than 3,000,000 won, they usually spend 10,000 to 15,000 won for the occasion. And for the daily dining-out, 34.7% respondents answered that they spend 2,000 to 3,000 won.

### I. 서 론

세계화, 국제화시대의 물결속에 기능과 합리성을 중요시하는 보편적인 거대한 시스템으로서의 성격이 강한 현대에 있어서 소득중대와 생활수준의 향상, 소비의식 행동변화, 여성의 사회진출과 사회참여 증가, 식품 및 식생활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가지 관련사업의 기술혁신 등은 식생활문화의 양상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이 식생활현장이 가정안에서 밖으로 확대되는 이른바 식생활의 외식화 및 그에 따른 외식산업의 증가이다<sup>1)</sup>. 80년대 이후 전국세대당 외식비 증가율은 80~89년 연평균 33%, 90년 초반 21%의 고도성장을 보여왔으며, 95년 현재 총식비에서 외식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28.9%에 이르고 있다<sup>2,3)</sup>. 아울러 여가증대의 사회적 분위기로 먹는 것에서 즐거움을 찾는 낙식의 증가로 외식산업은 더욱 증가하여 최근 약 20조원의 시장규모를 형성하고 있다<sup>4)</sup>. 현재 외식은 가정외의 식생활로서 여러종류의 요식업소, 회사, 학교 등의 단체급식, 도시락제조업소, 패스트푸드 등 음식의 종류와 형태가 다양하며 그 기능 또한 다양하다. 과거 식생활의 질이 낮았을 때는 외식이 부족한 영양을 보충하는 역할을 하였으나 오늘날의 외식은 영양보완 이외의 다른 여러가지 동기와 지향을 위해 우리의 식생활에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더우기 20세기 후반의 산업화, 정보화, 고도화사회는 기호와 취향으로 음식의 종류와 질을 결정하도록 유도할 것이므로 미

래의 외식산업은 고도의 기술과 감각을 중요시하는 경향이 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의 외식에 대한 연구로는 패스트푸드에 대한 소비자들의 외식행동에 대한 연구<sup>5-9)</sup>, 대학생들의 외식행동에 관한 연구<sup>10,11)</sup> 또는 여성들의 부페식당이용에 관한 조사<sup>12,13)</sup> 등이 이루어져 왔으나 앞으로 외식시장에서 큰 몫을 차지하게 될 주부들의 전반적인 외식행동에 관련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음식선택시 영향력이 큰 식생활관리자인 주부의 외식목적에 따른 외식행동에 관한 조사를 행하므로써 앞으로의 외식산업에 필요한 유의한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 II. 연구 방법

### 1. 조사대상 및 조사기간

부산시내에 거주하는 주부 454명을 대상으로 1995년 10월 10일에서 20일 사이에 조사를 행하였다.

### 2. 조사내용 및 방법

조사대상자들의 연령, 학력 등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관한 7개 항목과 사교 또는 친목도모, 가족과의 단란함 도모, 끼니를 때우기 위한 일상적인 외식 등의 외식목적에 따른 외식횟수, 외식시 선택하는 음식에 대한 선호도, 외식비용 등의 외식행동에 대해 설문지를 사용하여 조사하였다. 외식횟수 5단계, 외식종류별 선호도 5단계, 외식비용 6단계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 3. 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분석은 SAS program<sup>14)</sup>을 이용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외식횟수, 외식종류별 선호도, 외식비용 등에 대해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또한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외식횟수의 차이와 소득에 따른 외식비용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행하여 Chi-Square test로서 유의성을 검증하였고, 외식목적에 따른 외식의 횟수 및 외식종류별 선호도 차이는 분산분석(ANOVA)과 Duncan의 다중비교로서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 III. 결과 및 고찰

### 1.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본 조사에 응답한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연령은 31세에서 40세 사이가 29.7%, 41세에서 50세가 38.8%로서 31세에서 50세가 68.5%를 차지하고 있다. 교육정도는 고졸이 가장 많은 47.1%를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이 대졸(23.0%), 중졸(19.2%), 대학원 이상

표 1.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항 목	구 분	빈 도(%)
연령(세)	30 이하	88( 19.4)
	31~40	135( 29.7)
	41~50	176( 38.8)
	50 이상	55( 12.1)
계		454(100.0)
학력	국졸	19( 4.2)
	중졸	87( 19.2)
	고졸	213( 47.1)
	대졸	104( 23.0)
	대학원 이상	29( 6.4)
계		452(100.0)
종교	불교	241( 53.3)
	기독교	60( 13.3)
	카톨릭	40( 8.8)
	없음	108( 23.9)
	기타	3( 0.7)
계		452(100.0)
직업	유	147( 32.7)
	무	303( 67.3)
계		450(100.0)
가족수(명)	2	25( 5.5)
	3	79( 17.4)
	4	150( 33.0)
	5	127( 28.0)
	6 이상	73( 16.1)
계		454(100.0)
가족월소득(만원)	100 미만	83( 18.6)
	100~150	155( 34.8)
	150~200	107( 24.0)
	200~300	61( 13.7)
	300~400	16( 3.6)
400 이상	24( 5.4)	
계		446(100.0)
자가용	유	271( 59.7)
	무	183( 40.3)
계		454(100.0)

(6.4%), 국졸(4.2%) 순이다.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75.4%였으며 종교중에는 불교를 믿는 사람이 가장 많았다(53.3%). 직업을 가지고 있는 주부가 32.7%였으며 연령별로는 31~40세가 직업을 갖고 있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40%). 가족수는 4~5명이 전체의 61%를 차지했다. 가족월소득을 보면 조사대상자의 34.8%가 소득 수준 100~150만원이며, 24.0%가 150~200만원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자가용을 갖고 있는 세대가 59.7%를 차지하고 있다.

2. 외식행동

1) 외식 횟수

1979년 롯데리아의 개점으로부터 시작되어 80년대 고도경제성장기, 86아시안 게임, 88올림픽경기 등을 개최하면서 관광산업의 발전과 더불어 외식기회가 증가하여 1994년 기준으로 19조 5천억원의 외식시장규모를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국내 외식업소의 소비계층은 66.3%가 성인남자이고 성인여자는 10.3%<sup>4)</sup>이어서 상대적으로 여자의 외식비율이 낮은 상태이나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 및 맞벌이부부의 확산과 건강, 레저, 여가 등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신세대의 출현으로 앞으로 더욱 더 외식기회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주부들의 외식횟수를 알아보기 위해 외식목적에 사교 또는 친목도모, 가족과의 단란함도모, 끼니를 때우기 위한 일상적인 외식 등의 3가지로 나누어 조사하여 표 2와 같은 결과를 얻었다. 사교 또는 친목도모와 가족간의 단란함을 도모하기 위한 외식은 1개월에 1~2회에 응답한 비율이 각각 59.7, 45.8%로서 가장 높았으나, 단순히 끼니를 때우기 위한 일상적인 외식은 6개월에 1~2회 이하가 62.6%를 차지하여 그 횟수가 많지않음을 알 수 있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가족단위의 외식횟수를 조사한 안<sup>10)</sup>은 한달에 1회 이상이 52.4%, 거의 하지않는다가 28.5%를 차지한다고 보고한 바 있다. 본 조사 결과에서 가족간의 외식의 경우 1달에 1회 이상은 53.8%였고 전혀 하지 않는다는 8.9%를 나타내고 있어 안이 보고한 외식횟수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외식목적에 따른 외식 횟수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전혀 안한다, 6개월에 1~2회, 1개월에 1~2회, 1주에 1~2회, 거의매일을 각각 1, 2, 3, 4, 5점으로 점수화하여 분산분석과 Duncan의 다중비교로서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 주부들은 사교 또는 친목도모(평균 2.7)를 위해 가장 많이 외식

하고 있으며 그 다음이 가족간의 단란함 도모(평균 2.5), 일상적인 외식(평균 2.2)의 순서로 나타났다.

(1)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사교 또는 친목도모를 위한 외식횟수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7개 항목, 표 1 참조)에 따른 외식횟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외식횟수는 외식목적에 따라 유의수준이 다소 다르긴 하나 연령, 학력, 가족월소득, 자가용보유유무 등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교 또는 친목도모를 위한 외식의 경우(표 3), 연령에 따른 외식횟수의 차이를 보면 1주에 1~2회는 41~50세, 50세 이상이 각각 11.6, 14.5%로 비교적 높았고, 가장 빈도수가 높은 1개월에 1~2회는 41~50세(65.9%), 30세 이하(60.2%), 50세 이상(58.2%), 31~40세(51.9%)의 순으로 나타나 비교적 자녀가 중·고등학생일 것으로 예상되는 41~50세 주부들의 외식횟수가 많음을 알 수 있다. 학력에 있어서는 1주에 1~2회 외식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중졸(5.7%), 대학원 이상(7.2%), 고졸(9.5%), 대졸(14.4%), 국졸(17.7%)의 순서로 높게 나타났다. 소득수준에 따른 차이를 보면 1주에 1~2회에 응답한 비율은 200~300만원인 경우가 가장 높았고(13.8%), 1개월에 1~2회는 400만원 이상의 소득인 경우가 70.8%로 가장 높게 나타나 대체로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외식횟수가 많은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자가용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1개월에 1회 이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75.5%를 나타내어 그렇지 않은 경우의 61.1%에 비해 외식횟수가 많았다. 이외에 종교에 따라서도 외식횟수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이 갖지 않는 경우보다 비교적 외식횟수가 많음을 알 수 있었다.

(2)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가족간의 단란함을 도모하기 위한 외식횟수

가족간의 단란함 도모를 위한 외식횟수는 표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1주에 1~2회, 1개월에 1~2회 외식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연령층이 낮을수록 높았으며,

표 2. 외식 횟수

외식목적	빈도 (%)					계	평균*	비고
	전혀 안한다	6개월에 1~2회	1개월에 1~2회	1주에 1~2회	거의 매일			
사교 또는 친목도모	24( 5.4)	112(24.9)	268(59.7)	45(10.0)	·	449(100.0)	2.7 <sup>a</sup>	
가족과의 단란함도모	40( 8.9)	167(37.3)	205(45.8)	36( 8.0)	·	448(100.0)	2.5 <sup>b</sup>	F값
일상적인 외식 (끼니때우기 위함)	166(37.1)	114(25.5)	102(22.9)	44( 9.8)	21( 4.7)	447(100.0)	2.2 <sup>c</sup>	41.70

\*평균은 전혀 안한다 1, 6개월에 1~2회 2, 1개월에 1~2회 3, 1주에 1~2회 4, 거의 매일을 5점으로 점수화하여 산출된 것이며 a~c 문자가 다르게 표시된 것은 ANOVA-One way 분석과 Duncan's multiple range test로 사후검정한 결과 외식횟수에 차이가 있음(p<0.001).

표 3.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사고 또는 친목도모의 외식횟수

항 목	구 분	빈 도 (%)				
		전혀 안한다	6개월에 1~2회	1개월에 1~2회	1주에 1~2회	계
연령* (세)	30 이하	2( 2.3)	25(28.4)	53(60.2)	8( 9.1)	88(100.0)
	31~40	10( 7.5)	45(33.8)	69(51.9)	9( 6.8)	133(100.0)
	41~50	9( 5.2)	30(17.3)	114(65.9)	20(11.6)	173(100.0)
	50 이상	3( 5.5)	12(21.8)	32(58.2)	8(14.5)	55(100.0)
학력***	국졸	5(29.4)	4(23.5)	5(29.4)	3(17.7)	17(100.0)
	중졸	7( 8.1)	17(19.5)	58(66.7)	5( 5.7)	87(100.0)
	고졸	9( 4.3)	52(24.6)	130(61.6)	20( 9.5)	211(100.0)
	대졸	1( 1.0)	28(26.9)	60(57.7)	15(14.4)	104(100.0)
	대학원 이상	2( 7.1)	11(39.3)	13(46.4)	2( 7.2)	28(100.0)
종교**	불교	11( 4.6)	48(20.1)	150(62.8)	30(12.5)	239(100.0)
	기독교	1( 1.7)	21(35.0)	31(51.7)	7(11.6)	60(100.0)
	카톨릭	1( 2.5)	7(17.5)	30(75.0)	2( 5.0)	40(100.0)
	없음	10( 9.5)	35(33.4)	54(51.4)	6( 5.7)	105(100.0)
가족 월소득* (만원)	100 미만	9(11.0)	29(35.4)	37(45.1)	7( 8.5)	82(100.0)
	100~150	9( 5.8)	30(19.5)	100(64.9)	15( 9.8)	154(100.0)
	150~200	2( 1.9)	26(24.3)	71(66.3)	8( 7.5)	107(100.0)
	200~300	1( 1.7)	18(31.0)	31(53.5)	8(13.8)	58(100.0)
	300~400	2(12.5)	4(25.0)	8(50.0)	2(12.5)	16(100.0)
400 이상	0( 0.0)	4(16.7)	17(70.8)	3(12.5)	24(100.0)	
자가용**	유	9( 3.3)	57(21.2)	174(64.7)	29(10.8)	269(100.0)
	무	15( 8.3)	55(30.6)	94(52.2)	16( 8.9)	180(100.0)

\*chi-square 검증결과 유의하였음( $p < 0.05$ ), \*\* $p < 0.01$  \*\*\* $p < 0.001$

전혀 안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30세 이하가 3.4%로 가장 낮았고, 50세 이상이 18.5%로 가장 높게 나타나 연령층이 낮을수록 가족외식횟수가 많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사고 또는 친목도모의 경우 41~50세 주부의 외식횟수가 가장 많은 것과는 약간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학력에 따른 외식횟수의 차이를 보면 국졸, 중졸은 6개월에 1~2회에 응답한 비율이 각각 52.9, 54.6%로서 높게 나타났으며, 반면에 고졸 이상은 1개월에 1~2회에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특히 대졸 이상은 1주에 1~2회에 응답한 비율도 다른 군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소득에 있어서는 100만원 미만은 6개월에 1~2회에 응답한 비율(42.76%)이 다른 군에 비해 높았으며, 100만원 이상의 소득인 경우는 1개월에 1~2회에 가장 많이 응답하였고, 특히 40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가 62.5%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50.9%가 응답한 150~200만원이었다. 또한 400만원까지는 소득이 높을수록 1주에 1~2회에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자가용이 있는 경우는 1개월에 1~2회에 가장 많이 응답(52.4%)하였고, 없는 경우는 6개월에 1~2회에 응답한 비율이 44.1%로서 가장 높았다. 따라서 이

러한 결과는 사고 또는 친목도모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소득이 높을수록, 자가용이 있는 가정일수록 가족간의 단란함 도모를 위한 외식횟수가 많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가족수에 따라 외식횟수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가족수가 적을수록 1주에 1~2회 외식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으며, 1개월에 1~2회는 3인 가족이 64.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3)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끼니를 때우기 위한 일상적인 외식횟수

끼니를 때우기 위한 일상적인 외식횟수는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령에 있어서 30세 이하는 1개월에 1~2회 외식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31.6%로서 가장 높았으며, 30, 40, 50대는 전혀 안한다에 각각 31.6, 47.1, 44.4%가 응답하여 다른 군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1주에 1~2회에 응답한 비율은 연령층이 낮을수록 높게 나타나 가족간의 단란함을 도모하기 위한 경우와 비슷한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학력에 따른 차이에 있어서는 국졸, 중졸, 고졸은 전혀 안한다에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대졸의 경우는 1개월에 1~2회와, 6개월에 1~2회에 응답한 비율이 각각 29.8, 28.8%로서

표 4.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가족간의 단란함도모를 위한 외식횟수

항 목	구 분	빈 도 (%)				
		전혀 안한다	6개월에 1~2회	1개월에 1~2회	1주에 1~2회	계
연령* (세)	30 이하	3( 3.4)	17(19.3)	54(61.4)	14(15.9)	88(100.0)
	31~40	12( 9.0)	39(29.1)	71(53.0)	12( 8.9)	134(100.0)
	41~50	15( 8.7)	88(51.2)	61(35.5)	8( 4.6)	172(100.0)
	50 이상	10(18.5)	23(42.6)	19(35.2)	2( 3.7)	54(100.0)
가족수* (명)	2	3(12.0)	4(16.0)	12(48.0)	6(24.0)	25(100.0)
	3	2( 2.5)	15(19.0)	51(64.6)	11(13.9)	79(100.0)
	4	14( 9.3)	56(37.4)	68(45.3)	12( 8.0)	150(100.0)
	5	14(11.3)	57(46.0)	48(38.7)	5( 4.0)	124(100.0)
	6 이상	7(10.0)	35(50.0)	26(37.1)	2( 2.9)	70(100.0)
학력*	국졸	6(35.3)	9(52.9)	1( 5.9)	1( 5.9)	17(100.0)
	중졸	16(18.6)	47(54.6)	22(25.6)	1( 1.2)	86(100.0)
	고졸	14( 6.6)	78(37.0)	110(52.1)	9( 4.3)	211(100.0)
	대졸	4( 3.8)	23(22.1)	58(55.8)	19(18.3)	104(100.0)
	대학원 이상	0( 0.0)	9(31.0)	14(48.3)	6(20.7)	29(100.0)
가족 월소득* (만원)	100 미만	21(25.6)	35(42.7)	24(29.3)	2( 2.4)	82(100.0)
	100~150	11( 7.2)	61(39.8)	74(48.4)	7( 4.6)	153(100.0)
	150~200	5( 4.7)	35(33.1)	54(50.9)	12(11.3)	106(100.0)
	200~300	2( 3.3)	23(38.3)	27(45.0)	8(13.4)	60(100.0)
	300~400	1( 6.3)	5(31.3)	7(43.7)	3(18.7)	16(100.0)
400 이상	0( 0.0)	6(25.0)	15(62.5)	3(12.5)	24(100.0)	
자가용*	유	9( 3.4)	88(32.7)	141(52.4)	31(11.5)	269(100.0)
	무	31(17.3)	79(44.1)	64(35.8)	5( 2.8)	179(100.0)

\*chi-square 검증결과 유의하였음( $p < 0.001$ )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대학원 이상인 경우 거의 매일이 24.1%로서 다른 군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이것은 대학원 이상의 학력을 가진 주부들이 거의 직업을 갖고 있어 끼니를 때우기 위한 일상적인 외식의 기회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직업유무의 차이에 있어서 1주에 1~2회와 거의 매일에 응답한 비율은 직업이 있는 경우가 각각 14.7, 9.8%를 나타내어 직업이 없는 경우의 7.3, 2.0%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한 가족월소득에 따른 차이를 보면, 월소득 200만원 이하와 400만원 이상은 전혀 안한다에 응답한 비율이 높았으며 월소득 200~400만원은 1개월에 1~2회에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1주에 1~2회는 400만원 이상이 20.8%로 가장 높았고 반면에 거의 매일은 300~400만원이 25.0%의 비율을 나타내어 가장 높았다. 자가용이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 전혀 안한다를 제외한 전항목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외에 유의적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가족수에 따른 차이를 보면 2인 가족과 6인 이상 가족은 1개월에 1~2회, 3인은 6개월에 1~2회, 4, 5인 가족은 전혀 안한다에 응답한 비

율이 가장 높았다.

## 2) 외식의 종류에 대한 선호도

외식의 목적에 따라 외식시 선호하는 음식의 종류를 조사하기 위해 음식종류(한식, 양식, 일식, 중국식, 패스트푸드)에 따라 백분율을 산출하고 음식종류별로 전혀 먹지 않는다, 그다지 먹지 않는다, 보통이다, 자주 먹는다, 매우 자주 먹는다를 각각 1, 2, 3, 4, 5점으로 점수화하여 평균을 구한 후 분산분석과 Duncan의 다중비교로서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외식의 목적에 상관 없이 외식에서 가장 선호도가 높은 것은 한식이었으며 그의 양식, 일식, 중국식, 패스트푸드 등에 대한 선호도는 외식의 목적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1) 사교 및 친목도모를 위한 외식선호도

사교 및 친목도모를 위한 외식의 경우 표 6에 나타난 바와 같이 선호도는 한식(평균 3.76), 중국식(평균 2.53), 양식(평균 2.38), 일식(평균 2.12), 패스트푸드(평균 1.76) 순으로 나타났다( $p < 0.001$ ). 또한 연령에 따른 외식종류별 선호도에 있어서 패스트푸드를 제외한 다른 중

표 5.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일상적인 외식횟수

항 목	구 분	빈 도 (%)					
		전혀 안한다	6개월에 1~2회	1개월에 1~2회	1주에 1~2회	거의 매일	계
연령* (세)	30 이하	19(21.6)	25(28.4)	28(31.8)	13(14.8)	3( 3.4)	88(100.0)
	31~40	42(31.6)	39(29.3)	26(19.6)	18(13.5)	8( 6.0)	133(100.0)
	41~50	81(47.1)	37(21.5)	35(20.4)	11( 6.4)	8( 4.6)	172(100.0)
	50 이상	24(44.4)	13(24.1)	13(24.1)	2( 3.7)	2( 3.7)	54(100.0)
가족수** (명)	2	4(16.0)	7(28.0)	8(32.0)	3(12.0)	3(12.0)	25(100.0)
	3	17(21.8)	24(30.8)	20(25.6)	13(16.7)	4( 5.1)	78(100.0)
	4	65(43.6)	34(22.8)	32(21.5)	14( 9.4)	4( 2.7)	149(100.0)
	5	61(48.8)	33(26.4)	21(16.8)	7( 5.6)	3( 2.4)	125(100.0)
	6 이상	19(27.1)	16(22.9)	21(30.0)	7(10.0)	7(10.0)	70(100.0)
학력***	국졸	7(43.8)	6(37.5)	2(12.5)	1( 6.2)	0( 0.0)	16(100.0)
	중졸	53(61.6)	15(17.5)	13(15.1)	5( 5.8)	0( 0.0)	86(100.0)
	고졸	77(36.7)	57(27.1)	50(23.8)	18( 8.6)	8( 3.8)	210(100.0)
	대졸	22(21.2)	30(28.8)	31(29.8)	15(14.4)	6( 5.8)	104(100.0)
	대학원 이상	5(17.3)	6(20.7)	6(20.7)	5(17.2)	7(24.1)	29(100.0)
직업***	유	46(32.2)	32(22.4)	30(20.9)	21(14.7)	14( 9.8)	143(100.0)
	무	119(39.5)	82(27.3)	72(23.9)	22( 7.3)	6( 2.0)	301(100.0)
가족 월소득*** (만원)	100 미만	43(52.4)	17(20.7)	15(18.3)	6( 7.4)	1( 1.2)	82(100.0)
	100~150	61(39.9)	48(31.4)	29(18.9)	13( 8.5)	2( 1.3)	153(100.0)
	150~200	35(33.3)	28(26.7)	26(24.8)	11(10.5)	5( 4.7)	105(100.0)
	200~300	12(20.3)	16(27.1)	19(32.2)	8(13.6)	4( 6.8)	59(100.0)
	300~400	3(18.8)	3(18.8)	5(31.2)	1( 6.2)	4(25.0)	16(100.0)
400 이상	8(33.3)	1( 4.2)	7(29.2)	5(20.8)	3(12.5)	24(100.0)	
자가용***	유	76(28.3)	75(27.9)	71(26.4)	30(11.1)	17( 6.3)	269(100.0)
	무	90(50.6)	39(21.9)	31(17.4)	14( 7.9)	4( 2.2)	178(100.0)

\*chi-square 검증결과 유의하였음( $p < 0.05$ ) \*\* $p < 0.01$  \*\*\* $p < 0.001$

류에 있어서는 유의적인 차이를 찾아볼 수 없었다. 즉 패스트푸드에 대한 선호도는 30세 이하가 평균 2.21로서 다른 연령층에 비해 다소 높으며 41~50세가 1.56으로서 가장 선호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 가족단란함을 도모하기 위한 외식의 선호도

가족단란함을 도모하기 위한 외식일 때는 한식(평균 3.56)에 이어 양식(평균 2.75), 중국식(평균 2.67)이 비슷한 수준으로 선호되었고, 일식(평균 2.32)과 패스트푸드(평균 2.03)가 비교적 선호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의 경우 가족이 함께 하는 외식에서 한국 음식점을 가장 자주 선택하고 다음이 서양음식점, 중국음식점이라는 안의 보고<sup>10)</sup>와 거의 일치하고 있다.

(3) 일상적인 외식의 선호도

끼니를 때우기 위한 일상적인 외식의 경우는 중국식(평균 2.76)의 선호도가 한식(평균 3.31)에 이어 2위였으며 그 다음이 양식(평균 2.32), 패스트푸드(평균 2.17), 일식(평균 1.79)의 순서로 나타났다. 본 조사는 성인여

자는 양식을 선호하며 그 다음이 패스트푸드, 중식, 한식, 일식의 순으로 나타났다고 보고<sup>11)</sup>된 것과는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즉 주부의 경우 패스트푸드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낮음을 알 수 있다.

최근 여가와 소득의 증대로 그 소비형태가 다양화 되어 보다 간편하고 빠른 시간내에 영양식과 기호식으로 음식을 즐기게 되면서 우리의 전통적 한국음식의 식생활에서 점차 탈피하여 외식의 서구화로 국내 외식산업이 가족식당과(family restaurant)과 패스트푸드점을 중심으로 급속한 성장궤도에 들어서고 있다. 96년 국민 1인당 GNP 10,000달러를 초과하면서 외식산업에도 큰 전환이 예상된다. 한<sup>12)</sup>은 미래의 외식산업은 외식 전부분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가미된 차별화 브랜드가 주도하게 될 것이며 특히 이문화와 이민족간의 절충으로 한식에 일식이나 양식감각을 도입하거나 반대로 양식에 한식이나 일식 혹은 중국요리의 기법을 도입하여 종래에 없었던 감각에의 표현을 연출하는

표 6. 외식 목적에 따른 외식종류별 선호도

외식목적	음식종류	구 분 (%)					평균*	비고
		전혀 먹지 않는다	그다지 먹지 않는다	보통이다	자주 먹는다	매우 자주 먹는다		
사교 및 친목도모	한 식	1.1	4.3	26.6	53.5	14.5	3.76 <sup>a</sup>	F값 300.47
	양 식	18.3	37.4	33.3	10.3	0.7	2.38 <sup>c</sup>	
	일 식	31.6	34.8	24.3	9.2	0.2	2.12 <sup>d</sup>	
	중 국 식	16.2	31.4	36.9	14.4	1.1	2.53 <sup>b</sup>	
	패스트푸드	51.3	29.3	12.1	6.9	0.5	1.76 <sup>e</sup>	
가족과의 단관함 도모	한 식	3.4	8.3	29.5	46.2	12.6	3.56 <sup>a</sup>	F값 173.28
	양 식	12.7	25.1	39.4	20.5	2.3	2.75 <sup>b</sup>	
	일 식	34.4	34.6	20.8	9.7	0.5	2.07 <sup>c</sup>	
	중 국 식	15.2	24.8	40.2	17.7	2.1	2.67 <sup>b</sup>	
	패스트푸드	39.6	32.1	18.4	9.8	1.2	2.03 <sup>c</sup>	
일상적인 외식	한 식	10.0	12.6	26.0	39.0	12.4	3.31 <sup>a</sup>	F값 127.43
	양 식	23.9	30.7	35.7	8.9	0.7	2.32 <sup>c</sup>	
	일 식	44.5	35.8	16.3	3.2	0.2	1.79 <sup>e</sup>	
	중 국 식	18.3	16.6	39.2	22.4	3.6	2.76 <sup>b</sup>	
	패스트푸드	41.2	21.3	19.7	14.8	2.9	2.17 <sup>d</sup>	

\*평균은 전혀 먹지 않는다 1, 그다지 먹지 않는다 2, 보통이다 3, 자주 먹는다 4, 매우 자주 먹는다를 5점으로 점수화하여 산출된 것이며 a~e 문자가 다르게 표시된 집단은 ANOVA-Oneway 분석과 Duncan's multiple range test로 사후 검증한 결과 선호도에 차이가 있음(p<0.001).

절충요리점의 출현을 예고하고 있다.

또한 한편으로는 근래에 한식국수류로서 다림방, 장터국수, 다전국수 등이 국내보급형 패스트푸드로 정착하고 있는 추세이며, 어차피 사회·경제·문화적 요인에 의해 식생활 양식의 변화로 외식이 증가되는 추세라면 패스트푸드의 편의성, 신속성과 아울러 영양을 고루 갖춘 한식의 패스트푸드의 개발에 노력을 기울여보는 것도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3) 외식비용

통계청이 발표한 도시근로자 가계수지 동향에 따르면 지난 1994년 3·4분기중 도시근로자 가계의 한달 평균 외식비가 처음으로 10만원을 넘어섰고 1993년 동기에 비해 13.1%가 증가했다 이는 여가의 증대와 아울러 외식에 대한 지출이 증가된 것을 반영한다. 그 결과 외식비와 기호식품비가 전체식품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에 이르고 있다. 본 연구에서 외식목적에 따라 지출하는 1인당 1회 외식비용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1) 사교 또는 친목도모를 위한 외식비용

사교 또는 친목도모를 위한 외식의 경우 표 7에서 보는 바와같이 1회 지출하는 외식비용은 5천원 미만인 13.7%, 5천~1만원이 45.9%, 1만~1만오천원이 22.9%,

표 7. 외식비용(1인당)

외식목적	빈 도 (%)		
	사교 또는 친목도모	가족과의 단관함도모	일상적인 외식
비용(원)			
5,000 미만	61( 13.7)	80( 18.0)	
5,000~10,000	204( 45.9)	208( 46.8)	
10,000~15,000	102( 22.9)	90( 20.3)	
15,000~20,000	49( 11.0)	36( 8.1)	
20,000~30,000	24( 5.4)	20( 4.5)	
30,000 이상	5( 1.1)	10( 2.3)	
계	445(100.0)	444(100.0)	
1,000 미만			27( 6.3)
1,000~2,000			74( 17.3)
2,000~3,000			148( 34.7)
3,000~4,000			88( 20.6)
4,000~5,000			72( 16.9)
5,000 이상			18( 4.2)
계			427(100.0)

표 8. 소득에 따른 사교 또는 친목도모를 위한 외식비용

소득(만원)	외식비(원)						계
	5,000 이하	5,000~10,000	10,000~15,000	15,000~20,000	20,000~30,000	30,000 이상	
100 미만	17(21.3)	40(50.0)	10(12.5)	7( 8.8)	5( 6.2)	1(1.2)	80(100.0)
100~150	27(17.8)	75(49.3)	33(21.7)	9( 5.9)	6( 4.0)	2(1.3)	152(100.0)
150~200	8( 7.5)	52(49.0)	27(25.5)	15(14.2)	4( 3.8)	0(0.0)	106(100.0)
200~300	5( 8.3)	26(43.3)	15(25.0)	7(11.7)	7(11.7)	0(0.0)	60(100.0)
300~400	0( 0.0)	3(18.7)	8(50.0)	4(25.0)	1( 6.3)	0(0.0)	16(100.0)
400 이상	3(13.0)	4(17.4)	8(34.7)	6(26.1)	1( 4.4)	1(4.4)	23(100.0)
비 고			$\chi^2=53.008$	df=25	$p<0.001$		

표 9. 소득에 따른 가족과의 단란함 도모를 위한 외식비용

소득(만원)	외식비(원)						계
	5,000 이하	5,000~10,000	10,000~15,000	15,000~20,000	20,000~30,000	30,000 이상	
100 미만	25(30.9)	40(49.3)	8( 9.9)	5( 6.2)	2( 2.5)	1(1.2)	81(100.0)
100~150	31(20.5)	81(53.7)	18(11.9)	10( 6.6)	6( 4.0)	5(3.3)	151(100.0)
150~200	13(12.5)	50(48.1)	29(27.9)	10( 9.6)	2( 1.9)	0(0.0)	104(100.0)
200~300	7(11.7)	21(35.0)	17(28.3)	6(10.0)	7(11.7)	2(3.3)	60(100.0)
300~400	1( 6.2)	6(37.5)	6(37.5)	3(18.8)	0( 0.0)	0(0.0)	16(100.0)
400 이상	0( 0.0)	7(29.2)	11(45.9)	2( 8.3)	2( 8.3)	2(8.3)	24(100.0)
비 고			$\chi^2=69.013$	df=25	$p<0.001$		

1만5천~2만원이 11.0%를 차지하고 있어 5천원~1만원이 가장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다. 2만원 이상 지출하는 경우는 6.5%에 불과했다. 또한 외식비용은 소득수준에 따라 유의적인 차이( $p<0.001$ )가 있음을 표 8은 나타내고 있다. 월소득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는 1인 1회 외식비용이 5천~1만원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나, 300만원 이상인 경우는 1만~1만오천원이 가장 많았다. 또한 1만오천~2만원의 비용을 쓰는 경우는 월소득 300만원~400만원은 25.0%, 400만원 이상인 경우는 26.1%를 나타내고 있다.

(2) 가족과의 단란함 도모를 위한 외식비용

가족단란함을 위한 외식의 경우 5천~1만원의 비용을 지출하는 비율이 46.8%, 1만~1만오천원의 비용을 쓰는 비율이 20.3%를 차지하고 있어 사교 또는 친목도모의 경우와 비슷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5천원 미만은 18.0%이며, 3만원 이상은 2.3%를 나타내어 사교 또는 친목도모의 1.1%보다 높은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외식비용은 소득수준에 따라 상당한 유의적인 차이( $p<0.001$ )가 있었다. 표 9에 나타난 바와같이 월소득 300만원 이하인 경우는 5천~1만원의 외식비용이 가장 많았고, 특히 100~150만원의 경우가 53.7%로서

가장 비율이 높았다. 300~400만원의 소득이 있는 경우는 5천~1만원, 1만원~1만5천원이 37.5%로서 동일한 수준을 나타냈고 400만원 이상은 1만~1만5천원이 45.9%로서 가장 비율이 높았다.

(3) 일상적인 외식비용

끼니를 때우기 위한 일상적인 외식의 경우 2천~3천원에 응답한 비율이 34.7%로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3천~4천원으로서 20.6%, 4천~5천원이 16.9%를 차지하고 있으며 5천원 이상은 4.2%에 불과했다.

이상의 결과로 볼 때 앞으로의 외식시장은 특정한 테마를 중심으로 한 세분화된 고객 즉 30, 40대 사업가, 20, 30대의 독신남녀, 40, 50대 전업주부 등과 같이 직업, 소득수준에 따라 몹시 세분화된 특정계층을 대상으로 시설, 메뉴, 가격 등을 차별화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IV. 요약 및 결론

주부들의 외식행동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부산시내 거주하는 주부 454명을 대상으로 외식목적(사교 또는 친목도모, 가족과의 단란함 도모, 끼니를 때우기 위한



일상적인 외식)에 따른 외식횟수, 외식의 종류에 대한 선호도, 외식비용 등에 대해 설문조사하였다.

1. 사고 또는 친목도모와 가족간의 단란함을 도모하기 위한 외식은 1개월에 1~2회 외식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59.7, 45.8%로서 가장 높았고, 단순히 끼니를 때우기 위한 일상적인 외식은 6개월에 1~2회 이하가 62.6%를 차지했다. 또한 외식횟수는 연령, 학력, 가족월소득, 자가용보유 유무 등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고 및 친목도모를 위한 외식은 41~50세 주부들의 외식횟수가 많은 반면에 가족간의 단란함 도모 및 일상적인 외식은 연령층이 낮을수록 비교적 외식횟수가 많았다. 학력에 따른 외식횟수의 차이는 외식의 목적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대졸 주부들의 외식횟수가 많았다. 또한 대체로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외식횟수가 많은 경향을 보여 주었으며 자가용이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 외식횟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주부들이 선호하는 외식의 종류는 외식의 목적에 상관없이 한식이 가장 선호되었고 그외는 사고 및 친목도모를 위한 외식의 경우 중국식, 양식, 일식, 패스트푸드 순으로 나타났다. 가족과의 단란함을 도모하기 위한 외식은 양식과 중국식이 비슷한 수준으로 선호되었고 일식과 패스트푸드에 대한 선호도가 낮았다. 끼니를 때우기 위한 일상적인 외식의 경우는 한식에 이어 중국식, 양식, 패스트푸드, 일식의 순서로 나타났다.

3. 사고 또는 친목도모, 가족간의 단란함을 도모하기 위해 1인당 1회 지출하는 외식비용은 5천~1만원에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각각 45.8%, 46.8%). 이들은 소득수준에 따라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다. 즉 월소득 300만원 이하인 경우는 5천~1만원의 비율이 높았으나 30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는 1만~1만5천원에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일상적인 외식의 경우는 2천~3천원에 응답한 비율이 34.7%로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로 볼 때 외식의 비율이 높아지면서 외식소비지출의 내용의 다양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크게 가격지향적인 것과 가치지향적인 것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이다. 가치지향이 앞서면 고급식당의 이용이 많아질 것이고 가격지향이 우세하면 패스트푸드점을 이용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들 각각의 세분화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테마시장이 외식시장을 주도할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으로 주부들은 여전히 한식을 선호하고 있으므로 우리의 전통음식의 패스트푸드화의

장애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sup>15)</sup> 조리과정 복잡, 본래의 맛을 내기 어려움, 독특한 양념을 내기 어려워져 등을 극복하여 우리음식이 지니고 있는 영양이 풍부하고 성인병을 유발하지 않으며 깊은 맛이 우러나오는 식품을 개발, 표준화, 다양화시키므로서 전통식품의 외식화를 이룩함과 동시에 주부들의 외식시 한식에 대한 선택의 폭을 넓혀주는 것도 앞으로 외식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 사료된다.

## 참고문헌

1. 모수미. 외식산업의 발달이 국민영양 및 식생활에 미치는 영향. 한국영양학회지 19: 120, 1986.
2. 한민수. 외식산업의 현황과 전망 II 고감도를 추구하는 미래 외식산업의 구도. 한국식생활문화학회 춘계학술심포지움 초록, 1994.
3. 조선일보, 1996, 2월 23일.
4. 한국음식중앙회. 95 한국외식산업연람. 1995.
5. 류은순, 광동경. 국내 패스트푸드점에 대한 소비자의견조사 -제 1부: 햄버거 체인점을 중심으로-. 한국식문화학회지 4: 229, 1989.
6. 류은순, 광동경. 국내 패스트푸드점에 대한 소비자의견조사 -제 2부: 면류체인점을 중심으로. 한국식문화학회지 4: 237, 1989.
7. 류은순, 광동경. 국내 패스트푸드업체의 급식관리 구조개선을 위한 모형설정에 관한 연구. 한국식문화학회지 5: 455, 1990.
8. 모수미, 김창임, 이심열, 윤은영, 이정신, 최경숙. 패스트푸드의 외식행동에 관한 실태조사 -여의도 아파트단지를 중심으로-. 한국식문화학회지 1: 295, 1986.
9. 모수미, 전미정, 백수경, 이수경. 패스트푸드의 외식행동에 관한 실태조사 -여의도지역을 중심으로-. 한국식문화학회지 4: 83, 1989.
10. 안숙자. 서울지역 대학생들의 외식행동에 관한 연구. 한국식생활문화학회지 4(4): 383, 1989.
11. 한명주. 서울지역 대학생들의 패스트푸드의 외식행동에 관한 실태조사. 한국식문화학회지 7(2): 91, 1992.
12. 모수미, 최경숙, 김창임, 이수경, 정상진, 최선희. 호텔 부페음식에 관한 실태조사 -제 1보 부페식당 이용자의 식행동에 관한 설문조사-. 한국식문화학회지 6(2): 175, 1991.
13. 최경숙, 모수미. 호텔 부페음식에 관한 실태조사 -제 2보 여성들의 부페식당에서의 외식행동에 관한 연구. 한국식문화학회지 6(2): 185, 1991.
14. SAS/STAT Guide for personal computer. SAS Institute INC., Cary, North Carolina, p. 519, 1991.
15. 장영훈. 우리나라의 식문화와 외식산업의 전개방향. 신한종합연구소, p. 109, 1988.